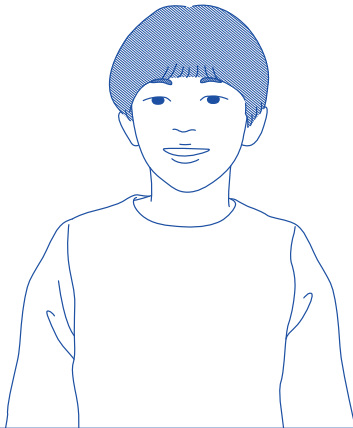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8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 기부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초등학교 기부천사 조호연 베르나르도 군

10년째 기부를 이어온 초등학교생이 있습니다.  
2008년 첫돌을 기념해 '생애첫기부'를 시작으로  
매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조호연 베르나르도 군(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번에 걸쳐  
나눔을 실천한 호연 군은 첫돌때부터 매해 생일이  
되는 8월이면 가족과 명동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찾아 기부증서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생일파티 대신 하는 호연 군의 가족행사입니다.

초등학교생 기부천사, 호연 군을 만나 기부에 관해  
물었습니다. 호연 군의 대답이 결정적입니다.

“제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  
돈이었는데요.”

말하고는 어색한지 환하게 웃는 모습은 역시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밝히는 순수함.  
이 순수함을 배우라고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되라 하셨나봅니다.

첫돌 전달식에서 물병을 잡고 아기 의자에 앉아  
있던 호연 군은 어느새 시키지 않아도 남을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해있었습니다. 1학년 때 학교

알뜰장터에서 자신의 물품을 판 금액 1만 원을  
선뜻 기부함에 넣기도 했습니다.  
누가 권유하거나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말하며 웃었다 합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문자 호연 군은 “무언가 나뉘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쓰지 않는 장난감을  
박스에 담아 성당에 기부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장난감을 남에게 준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왜 내 추억이 담긴  
장난감을 엄마 마음대로 넣느냐”며 따지기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장난감을 스스로  
골라 다 채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박스에  
장난감을 담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다고 호연 군은  
말했습니다.

이제 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힐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한 호연 군. 가난한 나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아 앞으로는 내가 많이 도와 줄테니 잘  
지내! 그리고 아프지 말고 잘 살아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적, 물질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체성사로 초대하시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14,16)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펼칩니다.  
직장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경험 '생애첫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  
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 아시  
아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국내의 백혈병·난치병  
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한마음한  
몸운동본부의 나눔캠페인입니다.

생애첫기부는 2008년 한 부모가 아이 돌잔치  
를 마치고 선물 받은 돌 반지를 아픈 아이들에  
게 전해달라며 고스란히 전해주면서 시작되었  
습니다. 첫째 14가족의 참여를 시작으로 매해  
참여자 수가 늘어 2018년 현재까지 총 5,833가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후원금은 지구촌 13개국 27개  
사업과 국내 환자의 치료비(백혈병·난치병, 장  
기이식대기자, 의사사각지대 환자 긴급지원)로  
지원됩니다.

생애첫기부 신청문의 02)727-2299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 본부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기념액자를  
만들어드리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감사선물과 감사장을 보내  
드립니다.

# 오늘도 자라나는 희망

- 아이티 국제개발협력 사업장 모니터링을 다녀와서



커뮤니케이션팀  
이상민 대리

완성된 상 제라드(St. Gerard) 학교의 모습



플래상스(Plaisance)의 학생들

산중에 터를 닦는 작업 중인 뽀띠부간(Petit-boucan) 주민들



저는 지난 3월 2일부터 7일간 중남미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Haiti)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장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본부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피해복구를 지원한 이래로 아이티 카리타스(CARITAS HAITI)와의 꾸준한 파트너십을 지속하며 진행했던 학교 재건 및 교보재 지원 사업, 2016년 허리케인 매슈(Hurricane Matthew) 피해복구 지원 등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티는 “산이 많은 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토의 75%가 산지인 이곳에 대지진과 허리케인이 닥쳤으니 산사태 등의 2차 피해도 심각했으리라 짐작 되었습니다. 대지진 후 8년이 지나면서 주거시설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지만, 전체 지진의 40%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던 교육시설은 아직 많은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착 직후에는 아이티 카리타스와 본부가 협력하여 지은 7개의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실제 사업 수행기관인 포르토프랭스 대교구의 실무자들과 함께 최근 완공된 상 제라드(St. Gerard)학교와 교보재를 지원했던 플래상스(Plaisance)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산비탈을 오르내리기를 수십 번, 드디어 나타난 학교에는 어디서 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꿈을 꿀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학부모들은 ‘환경이 열악한 산골 마을에 이 학교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어느 곳이나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의 상태나 책걸상 등의 교보재를 점검하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려운 건축 환경, 물가상승과 인건비 등 문서로는 와닿지 않았던 현지 사업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실에 모여 앉아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생각하면 여러 걱정들이 사라지고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허리케인 매슈의 피해를 입었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 주민은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잠을 자려고 누우면 하늘이 보였다’고 말하며, 본부의 피해복구 지원 덕분에 날아간 지붕을 수리하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의 감사함을 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허리케인 매슈의 피해복구를 위한 본부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주택 517채가 복원되었고 식량 및 위생키트가 각각 3,300개씩 피해 가구에 전달되었습니다.

지진과 태풍의 피해복구 사업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면 환경보호 및 재난 예방 지원 사업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뽀띠부간(Petit-boucan)이라는 산골 마을은 아이티의 다른 산지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황폐화 및 지반침식 등의 환경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을 보존하는 교육과 산림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눈에 띄는 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가파른 산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산림조성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저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아닌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은 아이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일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만족과 아쉬움을 반복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그 목적대로 전달되어 희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면서 아이티에서 본부가 대신 받았던 수많은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 잠자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도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부터 헌혈운동과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은 수혈에 드는 비용 중 건강보험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기 부담금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때문에 많은 양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헌혈증은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헌혈과 헌혈증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가지고 계신 헌혈증을 본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헌혈증이 필요한 환우가 있다면 본부를 알려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에게 헌혈증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헌혈증 지원 안내

지원대상	나이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지원내용	헌혈증 1인 200매까지 지원 / 필요시 재신청 가능
지원절차	지원신청(해당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진)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지원
신청서류	헌혈증지원신청서, 추천서, 진단서
문의전화	02)727-2293

# 자살한 이들과 유가족, 그리고 자살위기자들을 위한 미사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사 66,13

우리나라에서는 매일매일 36여 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깊은 상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도 소용없는 절망의 순간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좌절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삶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한가닥 삶의 끈, 한줄기 빛을 찾아 헤맵니다.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 누구도 이 질문 앞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미사를 통해 생명의 엄중함을, 삶의 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꿈꿨던 실가지 끝에서도 새싹이 움튼다. 생명의 외침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자연은 보여줍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내고, 살고,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더불어 찾아보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향	자살한 이들과 유가족 및 자살위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시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02)318-3079)	

